

■ 토론회 개관

이번 대구지방토론회는 언론중재제도를 홍보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언론중재제도의 운용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조정대상이 된 기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취재 보도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걸진 위원(대구중재부 중재위원,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대구중재부에 접수된 신청사건의 기사를 분석하여 오보에 대해 정의하고 오보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분석적 방법을 통해 오보의 유형과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어 권태인 위원(전 대구방송 보도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시간에는 대구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관계,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